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은예**·한수연***·박용한****

I 알기 쉬운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와 인지적 공감능력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학업 무기력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울이 높으면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저하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저하는 학업 무기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 경우,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친구관계를 잘 맺으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점은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의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적 측면인 정서적 요인에 대한 개입과 사회적 측면인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 모두를 동시에 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공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전문연구원, clxk0206@gmail.com

***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suseokac@daum.net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ypark@cnu.ac.kr

투 고 일 / 2023. 9. 4.

심 사 일 / 2023. 10. 13.

심사완료일 / 2023. 11. 7.

I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KCYPS 2018의 4차 시점(2021년)에 조사된 고등학교 1학년 2,26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medi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친구관계를 부적으로, 학업 무기력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친구관계는 학업 무기력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친구관계는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능력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우울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는 데 있어 긍정적인 친구관계와 인지적 공감능력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의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인 정서 요인으로서 우울에 대한 개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인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인지적 공감능력, 조절된 매개효과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리적·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겪는다(박병금, 2009;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특히 과도한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우울을 증가시킨다. 여성가족부(2022)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26.8%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우울 경험(27.7%)이 중학생의 우울 경험(2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 구체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증가하고, 심할 때는 문제행동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며, 성인이 된 후에 정서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호인, 2012; Bi, Moon, & Shin, 2022; Bhatia & Bhatia, 2007). 즉, 청소년기 우울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학교 성적, 또래·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는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감소하여 사회적·직업적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기력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Seligman(1974)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울한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의 결과로 무력감을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자신에게 닥칠 부정적인 결과를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함으로써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Hiroto & Seligman, 1975), 학업 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은 학교 공부에 대한 회의, 학업 동기 부족, 짜증 및 후회와 같은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볼 수 있다(박병기 외, 2015). 학업 무기력이 높으면 공부, 시험, 수업 등과 같은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닥쳐올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으며, 변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스스로 포기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지며 건전한 자아 정체감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무기력 현상은 전 생애에 걸쳐 발견되는 현상으로 주로 아동 중·후기에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명진, 봉미미, 2013). 옥일남(2004)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무기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기력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이들 집단과 고등학생의 무기력은 큰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 시기의 학업 무기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고등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초·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업 수준이 높아지고 학업 분량이 많아져 학생들이 이에 대한 압박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초기 1학년들의 학업 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업 무기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업 무기력을 낮추기 위한 처방적 개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장은아, 정혜원, 2023).

학업 무기력의 중요성을 반영하듯이 그동안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최근에 랜덤포레스트 방법(Breiman, 2001)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광범위하게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적 친구관계가 학업 무기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아, 정혜원, 2023). 국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Goetz & Dweck, 1980),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Sorrenti et al., 2019), 학업 성취(Valàs, 2001) 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중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청소년기에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환경 변인인 친구관계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이은희, 정순옥, 2006), 이때의 친구관계는 스트레스 및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이정선, 이형실, 2012).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위치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해 주는 또래친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더욱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은 또래관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서 우울 경향이 있는 개인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Thomas & Katherine, 2002).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서도 우울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손상을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일반적으로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격려와 위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Rudolph, Flynn, & Abaid,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또래에게 온·오프라인 상에서 신체적 혹은 관계적 피해를 받은 경험과 상호 인과적인 관계를 보이며(Forbes et al., 2019), 우울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Prinstein et al.,

2005). 즉,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저하되고, 친구 간의 교류가 적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상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또래관계는 우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우울증이 심한 학생의 경우 또래관계가 나빠지고 이것이 결국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 Moon, & Shin, 2022).

또래관계는 학업 무기력과도 관련되는데, 또래관계의 실패는 학습에 대한 무력감, 사회적 부적응, 잘못된 행동, 충동적 행동, 좌절에 대한 인내심 부족, 학습 의욕 저하,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저하, 수업참여에 대한 낮은 열의 등과 관련이 깊다(Wie & Yoon, 2014).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에 기반한 학교 내 사회적 지지는 학습된 무기력을 낮추지만 부정적 관계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여 무기력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 많은 선행연구에서 또래관계는 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임경희, 2004; 최유진, 2007; Raufelder, Regner, & Wood, 2018). 이는 친구와 갈등 상황에 있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낮은 기대감은 학업 무기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권미나, 이진숙, 2022). 이처럼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학업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우울은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적응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한 학생들은 학업 무기력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어 우울과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가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정선, 이형실,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는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울,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를 친구관계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관계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정서 인식 능력은 사회 인지 기능의 기본적 기능인 감정 및 지각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으로서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타인의 정서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정서 인식 능력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는 개인의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인지적 공감’이라고 한다(Zahavi, 2014).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 또는 그 과정을 일컬으며(이석호, 이영호, 2014), 이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는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가 있다(Barron-Cohen et al., 1997). 다양한 정서적 정보 중에서도 특히, 얼굴표정은 가장 직접적으로 타인의 정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비언어적 정보(조은의, 김제중, 2020)로 알려져 있는데, Feshbach(1997)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RMET는 인물의 눈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고 해당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얼굴표정의 정서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거나 편향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Yang & Bhanu, 2001),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Bouhuys, Geerts, & Gordijin, 1999).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친사회적 행동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정서 조절 능력 및 적응 등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한정수 외, 2021). 또한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지적 공감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한정수 외, 2021)와 정확한 인지적 공감은 우울과 부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Cramer & Jowett, 2010) 등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지만, 다양한 연구들은 공감능력 수준에 따라 우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감능력은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Boele et al., 2019), 애착불안과 비행 수준 간의 관계, 열망(aspirations)과 감사 경험 간의 관계 등 정서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박지연, 이은희, 2008; Bloom, 2017; Stern et al.,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공감능력이 조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울과 친구관계, 우울과 학업 무기력, 친구관계와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련성 혹은 인지적 공감과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단편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가 인지적 공감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우울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Prinstein et al., 2005; Thomas & Katherine, 2002), 우울과 또래관계에는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Forbes et al., 2019)를 토대로 우울이 친구관계에 선행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정서적 측면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는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가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고). 정서 얼굴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 적응 행동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Ekman, 1992).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정서 얼굴표정 인식에서의 결함은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중요한 잠재적 요인으로 나타나기에(Krause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에 겪는 우울로 빚어지는 친구관계의 어려움이나 학업에서 겪는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학업 무기력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을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개입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우울과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를 인지적 공감능력이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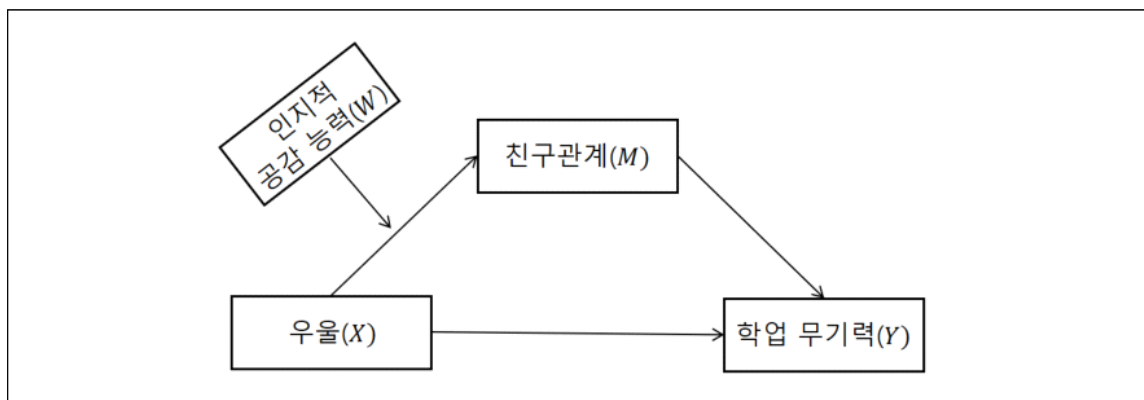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은 4차년도 자료인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총 2,265명이었고 남자 1,217명(53.7%), 여자 1,048명(46.3%)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1) 학업 무기력(종속변인)

학업 무기력은 박병기 외(2015)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학업 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학습과 관련해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학습 의욕은 어떠한지, 학습에서 얻는 즐거움은 어떠한지와 관련된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13으로 나타났다.

2) 우울(독립변인)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SCL-90(Symptom Checklist-90)을 변안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 척도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에서 수정·보완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04로 나타났다.

3) 친구관계(매개변인)

친구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가 타당화한 또래관계 질 척도 13문항을 활용하였다. 8개의 문항은 긍정 문항, 5개의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 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51로 나타났다.

4) 인지적 공감능력(조절변인)

인지적 공감능력은 Barron-Cohen, Wheelwright와 Jolliffe(1997)가 개발한 RMET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중 28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인물의 눈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고 해당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묘사한 단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며, '증오하는, 놀란, 친절한, 짜증난, 불친절한, 슬픈, 우호적인, 걱정하는, 속상한, 신난,

가여워하는, 농담하는, 편안한, 지루한, 행복한, 수줍은, 으스스대는, 화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사지선다로 제시하고 그 사진의 감정이나 생각을 묘사하는 단어를 고르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각 사진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한 번호를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이 평가 방법을 따랐으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고 정답 점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정답률)를 산출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72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신뢰도(Cronbach's α),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라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model 7을 활용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mediation)를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조건부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수는 평균 중심화하였다(홍세희, 정송, 2014; Hayes, 2018).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각 변수에 대한 정상분포 가정이 불필요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신뢰구간을 통한 유의성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하기 위해 PROCESS에서 제공하는 pick-a-point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제시되는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을지라도 그것이 조절변수의 모든 값이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다(Hayes, 201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의 '평균 $\pm$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수준을 나누어 분석하는 pick-a-point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우울(독립변인), 친구관계(매개변인), 학업 무기력(종속변인), 인지적 공감능력(조절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 무기력의 평균은 1.968($SD=0.491$), 우울의 평균은 1.787($SD=0.551$), 친구관계의 평균은 3.111($SD=0.415$),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0.545($SD=0.215$)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성 검증을 위한 왜도는 절댓값 기준 0.106~0.424 첨도는 0.160~1.102로 나타나 왜도의 절댓값 2 이하, 첨도의 절댓값 7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한편, 변인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과 학업 무기력($r=.421, p<.001$), 우울과 인지적 공감능력($r=.048, p<.05$), 인지적 공감능력과 친구관계($r=.080, p<.001$)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무기력과 친구관계($r=-.343, p<.001$), 학업 무기력과 인지적 공감능력($r=-.101, p<.001$), 우울과 친구관계($r=-.400, p<.001$)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울과 인지적 공감능력 간의 상관($r=.048, p<.05$)이 본 연구에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관계수 r 이 0.1 이하일 경우 작은 효과로 해석되며 0에 가까울 수록 두 변수는 선형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Taylor, 1990).

표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구분	학업 무기력	우울	친구관계	인지적 공감능력
학업 무기력	-			
우울	.421***	-		
친구관계	-.343***	-.400***	-	
인지적 공감능력	-.101***	.048*	.080***	-
평균	1.968	1.787	3.111	0.545
표준편차	0.491	0.551	0.415	0.215
왜도	0.106	0.424	-0.117	-0.385
첨도	-0.201	-0.206	0.160	-1.102

* $p<.05$, *** $p<.001$

2.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의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에 대한 직접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은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를 부적으로 예측하고($B=-0.301$, $p<.001$), 종속변수인 학업 무기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01$, $p<.001$). 한편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는 종속변수인 학업 무기력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0.246$, $p<.001$).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고, 학업 무기력의 평균은 높아지며,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 무기력의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울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0.074의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이 0.057~0.09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본 연구모형에서는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를 친구관계가 부분매개 하였다. 한편, 본 연구모형의 설명량은 .214($F=307.697$, $p<.001$)로 나타났다.

표 2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친구관계			종속변수: 학업 무기력		
	<i>B</i>	<i>SE</i>	<i>t</i>	<i>B</i>	<i>SE</i>	<i>t</i>
상수	3.648	0.027	134.588***	2.197	0.093	23.614***
우울	-0.301	0.145	-20.751***	0.301	0.018	16.615***
친구관계				-0.246	0.024	-10.242***
			$R^2=.160$, $F=430.588$, $p<.001$			$R^2=.214$, $F=307.697$, $p<.001$

*** $p<.001$

3.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표 3
조건부 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i>B</i>	<i>SE</i>	<i>t</i>	95% <i>CI</i>	
				<i>LL</i>	<i>UL</i>
종속변수: 친구관계					
상수	3.108	0.008	393.788***	3.093	3.124
우울	-0.317	0.015	-21.901***	-0.345	-0.288
인지적 공감능력	0.188	0.036	5.128***	0.116	0.260
우울*인지적 공감능력	0.433	0.711	6.093***	0.294	0.573
$R^2=.183, F=168.875^{***}$					
종속변수: 학업 무기력					
상수	2.735	0.075	36.283***	2.587	2.882
우울	0.301	0.018	16.615***	0.265	0.336
친구관계	-0.246	0.024	-10.242***	-0.294	-0.199
$R^2=.214, F=307.697^{***}$					

*** $p<.001$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인인 인지적 공감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model 7번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이 높을수록 친구관계 수준이 감소하며($a=-0.317, p<.00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_2=0.188, p<.001$). 또한, 우울×인지적 공감능력의 상호작용(XW)항이 유의하여($a_3=0.433, p<.001$) 우울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인지적 공감능력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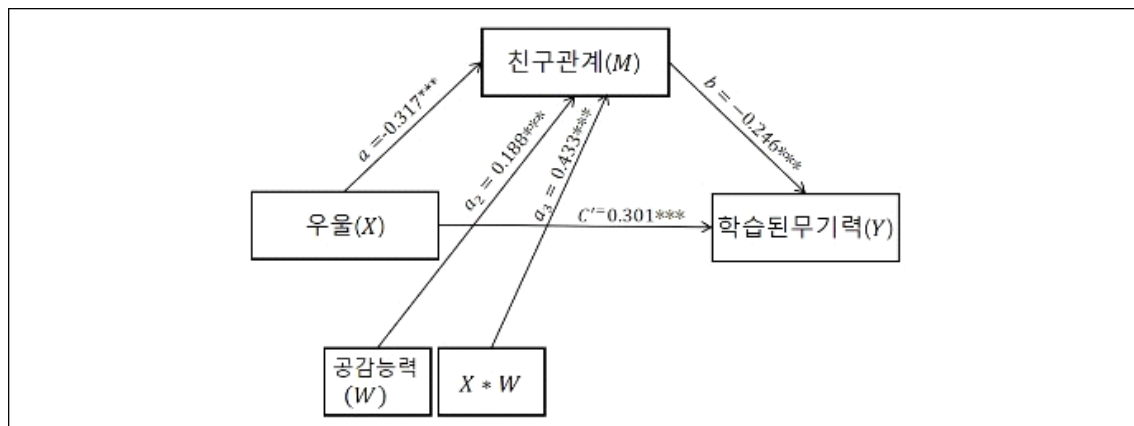


그림 2. 통계 모형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 및 평균 $\pm 1SD$ 에 해당하는 세 지점에서 조건부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나와 있듯이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값($B=-0.317$, $CI:-0.345\sim-0.288$),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을 때($B=-0.410$, $CI:-0.454\sim-0.366$),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을 때($B=-0.223$, $CI:-0.262\sim-0.185$) 등의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인지적 공감능력의 모든 수준에서 우울의 친구관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의 세 수준에서 우울이 친구관계를 예측하고 경로계수의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지적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예측력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친구관계를 인지적 공감능력이 조절하는 효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공감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울과 친구관계를 인지적 공감능력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존슨 네이만(Johanson-Neyman) 방법을 적용하여 인지적 공감능력의 범위를 평균을 중심으로 -0.473~0.419까지 확대한 결과에서도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표 4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조절변인	수준	B	SE	95% CI	
				LL	UL
인지적 공감능력	평균-1SD(-0.215)	-0.410	0.023	-0.454	-0.366
	평균(0)	-0.317	0.015	-0.345	-0.288
	평균+1SD(+0.215)	-0.223	0.020	-0.262	-0.185

그림 3을 보면, 우울은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지적 공감능력이 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낮은 수준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친구관계의 점수가 큰 차이가 없지만 우울이 높아질수록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친구관계의 점수 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는데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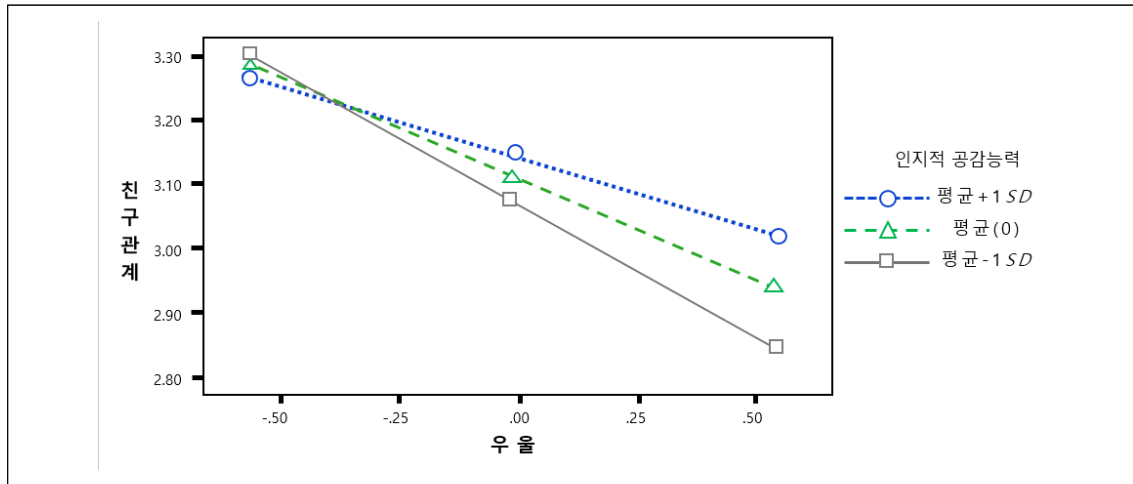


그림 3. 우울과 인지적 공감능력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한편,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mediation)의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인지적 공감능력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ab=-0.107$, $CI:-0.154\sim-0.066$). 이는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능력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조절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CI	
			LL	UL
인지적 공감능력	-0.107	0.022	-0.154	-0.066

우울과 인지적 공감능력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하였고,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 및 $\pm 1SD$ 에 해당하는 세 지점의 값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 공감능력이 평균값을 가질 때 간접효과는 $0.078(95\% CI=0.060\sim0.097)$,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을 때 $0.101(95\% CI=0.076\sim0.127)$,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을 때 $0.055(95\% CI=0.040\sim0.072)$ 로 나타났으며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 및 $\pm 1SD$ 에서 우울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 평균 $\pm 1SD$ 에 해당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아 인지적 공감능력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할 수 있었다. 즉,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친구관계를 거쳐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낮추기 위해 친구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6

조절변수의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변인	수준	<i>B</i>	<i>SE</i>	95% <i>CI</i>	
				<i>LL</i>	<i>UL</i>
인지적 공감능력	평균-1SD(-0.215)	0.101	0.013	0.076	0.127
	평균(0)	0.078	0.010	0.060	0.097
	평균+1SD(+0.215)	0.055	0.008	0.040	0.07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가 이를 매개하는지, 이들의 관계를 인지적 공감능력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에 대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종속변수인 학업 무기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는 종속변수인 학업 무기력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저하되고, 학업 무기력은 높아지며,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 무기력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를 친구관계가 부분 매개하였다. 즉 우울이 높으면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저하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저하는 학업 무기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과 부정적인 친구관계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우울과 또래관계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증상이 높은 청소년들은 이후의 또래관계를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Zimmer-Gembeck et al., 2009),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덜 맺었고(De Matos et al., 2003),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er & Whitesell, 1996).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우울과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친구관계가 학업 무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임경희, 2004).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학업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신념으로서 성공적인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선택과 사회로의 진출 등 다양한 과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을 돕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관리를 위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입이 필요한 학생 수에 비해 치료 인력 및 시설은 부족하며 학생들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한다(조유선 외, 2022). 이에 우울증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개입이 필요한 학생들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관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학업 무기력을 예방하기 위해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 역량은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형성,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 및 갈등 관리 등과 관련된 사회적 능력을 뜻한다(김태준, 2009).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 내에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과 내 대인관계 요소 반영 등 학교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학업 무기력을 낮추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적 공감능력이 조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저하되었으나 인지적 공감능력의 수준에 따라 이들 간의 관계가 달라졌으며, 우울이 친구관계와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간접효과 역시 인지적 공감능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아져도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완만하게 낮아지지만,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이 높아지게 되면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가파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 때에는 낮을 때에 비해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다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울과 학업 무기력의 관계는 매개변인인 친구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간접효과 역시 인지적 공감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완화된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된 정보 처리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이 낮은 청소년은 따돌림 등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Nejati, 2018; Yilmaz Kafali et al., 2021).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공감의 조절 역할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감능력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주변의 지원 및 지지를 해석하는데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Chen et al., 2023). 구체적으로 공감이 낮은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을 경우 지지적인 부모의 격려가 자신의 비행 행동을 격려한다고 해석하여 더 많은 비행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Van der Graaff et al.,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인지적 공감이 낮은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또래와 더 부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친구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기도 하며(Lahey, Waldman, & McBurnett, 1999) 이것이 학업 무기력을 높이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울을 겪는 청소년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맺도록 돕고 더 나아가 학업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의도를 인식하는 능력은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는 인지적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Overgaauw et al., 2015). 고등학생 시기는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교과 위주의 교육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 치우쳐 자칫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적 측면인 정서 발달 교육에는 소홀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이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될 교육적 영역임이 틀림없다.

종합하면, 우울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친구관계를 잘 맺도록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우울이 친구관계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우울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간접효과 역시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울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낮추기 위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 인지는 마음이론, 공감, 사회적 행동, 사회적 및 정서적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과정의 범위를 포함한다(Henry et al., 2016). 특히 이 중 감정 지각은 타인의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임상적 문제와 부적응적 대처 양식을 예측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Phillips et al., 2003). Zaki(2019)는 자신의 공감 정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공감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공감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정서 교육의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건강한 시민 양성을 위해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을 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우채영, 2016), 사회정서학습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이들의 사회적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지적 공감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국 단위의 표집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적 측면인 정서적 요인에 대한 개입과 사회적 측면인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 모두를 동시에 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개입 방안을 좀 더 객관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울과 인지적 공감능력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과 우울과 친구관계가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각각 18%와 21%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관계와 학업 무기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모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고등학생의 학업 무기력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후기 청소년을 포함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된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활용하였다(Lee, Nam, & Hur, 2020). 향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타당하게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미나, 이진숙 (202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청소년학연구**, 29(5), 87-108. doi:10.21509/kjys.2022.05.29.5.87
- 권호인 (2012).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의 예방 개입에 대한 고찰. **인지행동치료**, 12(1), 21-41.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태준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병금 (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1, 207-235.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doi:10.17643/kjce.2015.24.4.01
- 박지연,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여성가족부 (2022). 2022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
- 옥일남 (2004).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 연구-사회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6(2), 105-139.
- 우채영 (2016). 사회정서학습(SEL)의 교육적 의의. **청소년학연구**, 23(3), 163-185. doi:10.21509/KJYS.2016.03.23.3.163
- 유기영, 신영규, 은백린, 박상희, 독고영창 (2000).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우울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43(2), 172-178.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석호, 이영호 (2014). 우울한 사람들의 공감정확도와 스스로 보고한 공감능력: 대학생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17-33. doi:10.15842/kjcp.2014.33.1.002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0.
- 이은희, 정순옥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공변량 구조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7(2), 213-239.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 임경희 (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2), 473-507.
- 장은아, 정혜원 (2023).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 탐색: 랜덤포레스트와 SHAP 적용. **교육학연구**, 61(1), 31-63. doi:10.15753/aje.2023.9.24.3.587
- 조유선, 김광욱, 김지수, 오수진 (202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조은의, 김제중 (2020). 우울증의 얼굴표정 정서정보 처리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stress**, 28(2), 41-50. doi:10.17547/kjsr.2020.28.2.41
- 최유진 (2007). **사회적 지지와 학업능력지각이 무기력, 열등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은지,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및 우울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667-684.
- 한정수, 최주희, 이상옥, 김유리, 김성수 (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공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위험지각과 간접외상을 통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609-625. doi : 10.5392/JKCA.2021.21.11.609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doi:10.15284/kjhd.2014.21.4.1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doi:10.1037/0021-843x.87.1.4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doi: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Barron-Cohen, S., S. Wheelwright, & T. Jolliffe (1997). "Is There a "Language of the Eyes"? Evidence from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Visual Cognition*, 4(3), 311-331. doi:10.1080/713756761
- Bhatia, S. K., & Bhatia, S. C.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1), 73-80. doi:10.1037/e552642011-001
- Bi, Y., Moon, M., & Shin, M. (2022). The Longitudinal Effects of Depression on Academic Performance in Chinese Adolescents via Peer Relationships: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 181-192. doi:10.3390/ijerph20010181

- Bloom, P. (2017).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Random House. doi:10.51427/ptl.fdv.2017.0064
- Boele, S., Van der Graaff, J., De Wied, M., Van der Valk, I. E., Crocetti, E., & Branje, S. (2019). Linking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to empathy in adolescence: A multilevel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 1033-1055. doi:10.1007/s10964-019-00993-5
- Bouhuys, A. L., Geerts, E., & Gordijn, M. C. (1999). Depressed patients' perceptions of facial emotions in depressed and remitted states are associated with relapse: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10), 595-602. doi:10.1097/00005053-199910000-00002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 5-32.
- Chen, H., Meza, J. I., Yan, Y., Wu, Q., & Lin, X. (2023).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Moderation mediation model of empathy and gender. *Current Psychology*, 42(7), 5898-5909. doi:10.1007/s12144-021-01698-4
- Cramer, D., & Jowett, S. (2010). Perceived empathy, accurate empath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3), 327-349. doi:10.1177/0265407509348384
- De Matos, M. G., Barrett, P., Dadds, M., & Shortt, A. (2003). Anxiety, de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Results from the Portuguese national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 3-14. doi:10.1007/bf03173600
- Ekman, P. (1992). Are there basic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99, 550-553.
- Feshbach, N. D. (1997). Empathy: The formative years--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doi:10.1037/10226-001
- Forbes, M. K., Fitzpatrick, S., Magson, N. R., & Rapee, R. M. (2019). Depression, anxiety, and peer victimization: Bidirectional relationships and associated outcomes transition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4), 692-702. doi:10.1007/s10964-018-0922-6
- Goetz, T. E., & Dweck, C. S. (1980). Learned helplessness in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2), 246-255. doi:10.1037/0022-3514.39.2.246
- Harter, S., & Whitesell, N. R. (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4), 761-777. doi:10.1017/s095457940000741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second edi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 Henry, J. D., Von Hippel, W., Molenberghs, P., Lee, T., & Sachdev, P. S. (2016). Clinical assessment of social cognitive function in neurological disorders. *Nature Reviews Neurology*, 12(1), 28-39. doi:10.1038/nrneurol.2015.229
- Hiroto, D. S., & Seligman, M. E.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2), 311-327. doi:10.1037/h007627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Krause, F. C., Linardatos, E., Fresco, D. M., & Moore, M. T. (2021). Facial emotion recogni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3, 320-328. doi:10.1016/j.jad.2021.06.053
- Lahey, B. B., Waldman, I. D., & McBurnett, K. (1999). Annotatio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An integrative causal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669-682. doi:10.1111/1469-7610.00484
- Lee, H. R., Nam, G., & Hur, J. W.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PLoS One*, 15(8), e0238309. doi:10.1371/journal.pone.0238309
- Nejati, V. (2018). Negative interpretation of social cue in depression: Evidence from reading mind from eyes test. *Neurology, Psychiatry and Brain Research*, 27, 12-16. doi:10.1016/j.npbr.2017.11.001
- Overgaauw, S., van Duijvenvoorde, A. C., Gunther Moor, B., & Crone, E. A. (2015). A longitudinal analysis of neural regions involved in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0(5), 619-627. doi:10.1093/scan/nsu095
- Phillips, M. L., Drevets, W. C., Rauch, S. L., & Lane, R. (2003). Neurobiology of emotion perception II: Implications for major psychiatric disorders. *Biological Psychiatry*, 54(5), 515-528. doi:10.1016/s0006-3223(03)00171-9
- Prinstein, M. J., Borelli, J. L., Cheah, C. S., Simon, V. A., & Aikins, J. W. (2005). Adolescent girls' interpersonal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 examination of reassurance-seek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76-688. doi:10.1037/0021-843x.114.4.676
- Raufelder, D., Regner, N., & Wood, M. A. (2018). Test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is moderated by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motivational support. *Educational Psychology*, 38(1), 54-74. doi:10.1080/01443410.2017.1304532
- Rudolph, K. D., Flynn, M., & Abaied, J. L. (2008).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theories of youth depression. In John R. Z., Abela B., & L. Hankin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79-102). The Guilford Press.
- Seligman, M. E. (1974).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John Wiley & Sons.
- Sorrenti, L., Spadaro, L., Mafodda, A. V., Scopelliti, G., Orecchio, S., & Filippello, P. (2019). The predicting role of school Learned helplessnes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 exploratory study in students with Specific Learning Disorder. *Mediterran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 1-14. doi:10.6092/2282-1619/2019.7.2035
- Stern, J. A., Botdorf, M., Cassidy, J., & Riggins, T. (2019). Empathic responding and hippocampal volume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55(9), 1908-1920. doi:10.1037/dev0000684
- Taylor, R. (1990).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 basic review. *Journal of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 4(1), 35-39. doi:10.1177/875647939000600106
- Thomas, E. J., & Katherine A. T. (2002). Depression in its interpersonal context. In Lan H. G. & Constance L. H., (Eds), *Handbook of Depression* (pp. 322-339). The Guilford Press.
- Valås, H. (2001). Learned helplessn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I: Effects of learning disabilities and low achievement.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2), 101-114. doi:10.1080/00313830120052705
- Van der Graaff, J., Branje, S., De Wied, M., & Meeus, W. (2012).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y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8(5), 368-377. doi:10.1002/ab.21435
- Wie, S. U., & Yoon, H. K. (2014, June). *A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and Helplessness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Conference session]. The Korea

-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https://www-dbpia-co-kr.libra.cnu.ac.kr/pdf/pdfView.do?nodeId=NODE02507369>
- Yang, S., & Bhanu, B. (2011).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using emotion avatar image* [Conference session]. 201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ic Face & Gesture Recognition. <https://www.vislab.ucr.edu/PUBLICATIONS/pubs/Journal%20and%20Conference%20Papers/after10-1-1997/Conference/2011/Facial%20expression%20recognition%20using11>
- Yilmaz Kafali, H., Kayan Ocakoglu, B., Isik, A., Ayvalik Baydur, Ü. G., Müjdecioglu Demir, G., Sahin Erener, M., & Üneri, Ö. Ş. (2021). Theory of mind failure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contributors to pe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s Health Care, 50*(4), 413-431. doi:10.1080/02739615.2021.1926250
- Zahavi, D. (2014). Empathy and other-directed intentionality. *Topoi, 33*(1), 129-142. doi:10.1007/s11245-013-9197-4
- Zaki, J. (2019). *The war for kindness: Building empathy in a fractured world*. Crown.
- Zimmer-Gembeck, M. J., Hunter, T. A., Waters, A. M., & Pronk, R. (2009). Depression as a longitudinal outcome and antecedent of pre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nd peer-relevant cogni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2), 555-577. doi:10.1017/s0954579409000303

ABSTRA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pathy in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helplessness

Kim, Eunye*·Han, Sooyeon**·Park, Yong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pathy'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adolescents. To this end, data from 2,265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surveyed at the 4th measurement point of KCYPS 2018 (year of 2021) were analyzed using Hayes' model 7 for the moderated medi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negatively predicted 'peer relationships' but positively predicted 'academic helplessness', while 'peer relationships' negatively predicted 'academic helplessness'. Second, 'peer relationships' were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Third, the 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peer relationships' and the in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academic helplessness' through 'peer relationships' were moderated by 'cognitive empathy'. Findings demonstrat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for adolescents to form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especially to improve cognitive empathy, in order to lower the negative impact of depression on academic helpless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reduce academic helplessness of those adolescents with a high level of depression, interventions should be made to help them form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improve cognitive empathy.

Key Words: depression, peer relationships, academic helplessness, cognitive empathy, moderated mediating effect

*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Innovation, Senior Researcher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Education Research Professor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